

레노버, 리야드에 제조기지 착공

중동·아프리카 시장 정조준



레노버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 양원경(좌6)과 알랏 최고경영자 아미트 미드하(좌5)가 함께 리야드에서 제조기지 착공식에 참가했다. / 광명넷

중국의 다국적 과학기술회사 레노버 알랏이 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새로운 제조기지를 착공했다. 레노버의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 리야드공항 인근 통합물류특구내에 위

치한 해당 공장은 면적 20만평방미터를 차지하며 오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해 노트북·데스크톱(台式机)·서버(服务器)를 집중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최대 1만 5,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4만 5,000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사우디 비석유 국내총생산에 대한 투자 기여도가 최대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레노버는 리야드에 중동·아프리카 본부를 구축해 해당 지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식에서 레노버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 양원경은 “레노버는 알랏과의 강력한 전략적 협력과 투자를 통해 더 넓은 글로벌 지위와 탄탄한 지역 거점을 확보했다.”면서 “이로써 사우디는 물론 더 넓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놀라운 성장 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알랏 최고경영자 아미트 미드하는 “리야드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사우디에 청정에너지 기반의 세계적인 제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레노버팀은 중동·아프리카지역 전반에 걸쳐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화넷

벨지오·중국경제무역위원회 위원장: 관세를 ‘무기’ 삼으면 역풍 맞을 것

벨지오·중국경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드윗은 미국 새 정부가 관세 무기를 동원해 무역 파트너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는 미국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최근 지적했다.

드윗은 미국정부가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은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도 미국 본토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미국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본래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식품 업체나 제조업 분야의 수입 상품이 더 비쌀 것이라며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면 판매량 감소와 재고 적체의 위험이 있고 이것이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일부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신화넷

트럼프, 미국 수입 강철·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강철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요구에는 “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외 트럼프는 “자동차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강철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3월 4일부터 발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제방송

[뉴스분석]

이시바 시계루의 구두수표 트럼프의 관세몽동이 피할 수 있을까?



2025년 2월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일본 수상 이시바 시계루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시각중국

일본 수상 이시바 시계루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회담에서 이시바 시계루는 적극적인 투자 증가와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에 호의를 표함으로써 미국측이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이시바 시계루는 트럼프에게 도요타(丰田)와 이스즈(五十鈴)의 미국에서의 자동차 공장 설립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은 미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다.

2019년 이래 일본의 대 미국 직접투자 잔액은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2023년까지 일본의 대 미국 직접투자 잔액은 약 8,000억달러에 달했다. 이시바 시계루는 쌍방의 공동 노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1조달러로 늘려 사상 최대의 투자 규모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시바 시계루는 미국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이 조치가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 무역 적자를 줄이는 조치중의 하나로 “일본이 조만간 기록적인 량의 미국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시바 시계루가 자신의 구두수표를 실행할 수 있을지, 미국은 이에 따라 더 이상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일지에 대한 질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미일의 ‘알래스카주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 관한 일미 합작 논의’에 대해 국제환경경제연구소 리사 다케우치 준코는 일본측은 알래스카 가스선 프로젝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북부에 위치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송관을 건설해야 하며 그로 인해 증가된 비용도 결국 일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다케우치는 미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일본이 구매하기를 바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이시바 시계루 정부가 직접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신중했는지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마크롱: 프랑스 인공지능 분야 1,090억유로 투자받는다

프랑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훈련시킬 젊은이수는 현재의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증가될 것

9일 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프랑스텔레비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년간 프랑스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는 1,09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롱은 이 1,090억유로는 아랍추장국련방의 프랑스 인공지능단지에서의 건설투자와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투자기금 및 프랑스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은 이 투자 규모는 미국의 ‘스타게이트’(星际之门) 프로젝트에 상응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개방인공지능연구센터(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그룹(软银集团), 미국 오라클회사(甲骨文公司)가 공동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향후 4년 동안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 전례없는 기술혁명을 겪고 있다.” 마크롱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므로 인류가 더 나은 생활과 학습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프랑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훈련시킬 젊은이수는 현재의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표했다.

빠리 인공지능행동 정상회의는 10일 프랑스 수도 빠리의 대황궁에서 이들의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원수, 정부 수뇌자 및 국제기구 책임자, 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협력을 더욱 심화했다. / 신화넷

마크롱은 이 투자 규모는 미국의 ‘스타게이트’(星际之门) 프로젝트에 상응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개방인공지능연구센터(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그룹(软银集团), 미국 오라클회사(甲骨文公司)가 공동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향후 4년 동안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 전례없는 기술혁명을 겪고 있다.” 마크롱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므로 인류가 더 나은 생활과 학습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프랑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훈련시킬 젊은이수는 현재의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표했다.

빠리 인공지능행동 정상회의는 10일 프랑스 수도 빠리의 대황궁에서 이들의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원수, 정부 수뇌자 및 국제기구 책임자, 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협력을 더욱 심화했다. / 신화넷

마크롱은 이 투자 규모는 미국의 ‘스타게이트’(星际之门) 프로젝트에 상응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개방인공지능연구센터(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그룹(软银集团), 미국 오라클회사(甲骨文公司)가 공동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향후 4년 동안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빠리의 대황궁에서 찍은 빠리 인공지능행동 정상회의의 현상. / 신화넷

트럼프: 캐나다 병합은 나의 진심이다



2023년 11월 22일,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지역에서 찍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무지개다리통상구. / 신화넷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언론이 9일에 방영한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폭스뉴스 기자는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정말로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은지 물었다. 트럼프는 “그렇다. 나는 캐나다(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캐나다로부터 2,000억달러의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방송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총리 트뤼도는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그가 트럼프와 일부 의제를 논의할 때 “트럼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 나라를 병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트뤼도가 그후에 “그들(미국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뤼도는 캐나다(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하며 이를 ‘경제력’으로 실현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일찍 트뤼도를 ‘캐나다주 주장’이라고 불렀다. 앞서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과거 트뤼도에게 캐나다(미국에서) 부과할 관세를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미국에 병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우와 같은 발언은 캐나다측의 광범위한 반대를 받았다. / 신화넷